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광야로 가십니다. 사십일 동안 머무시면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유혹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원수와 계속할 내적 투쟁을 상징적으로 비취줍니다.

예수님께서 허기가 극에 달하셨을 때를 맞춰 악마는 하느님과 예수님 사이의 조화를 깨뜨리려고, ‘너 하느님 아들이니? 빵을 만들어 먹어’라고 마음속에 떠올려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속삭임을 단호하게 떨쳐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배고픔을 겪는 가운데,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순명을 드러내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느님 아들로서의 권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메시아이지만, 또한 하느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순명 속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걸으실 영광의 길은 결코 받은 권능을 맘대로 사용하면서 자기 뜻을 펼쳐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순명하고,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길입니다.

다른 두 가지 유혹, 즉 마귀가 또 하느님 흥재를 내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이 유혹에 말려들면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루카 4,8)라고 단호히 그 생각을 떨쳐버리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당신 신원과 권능에 관한 보장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을 펼쳐나가지 않고,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삶의 주도권도 자기에게 움켜쥐지 않고, 하느님께 드리며 순종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제자들도 교회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사순 시기 동안 성령께 의탁하며, 성경을 충실히 읽어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이 유혹들을 식별해 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으셨듯이, 우리도 끝내는 그렇게 될 것을 굳게 믿읍시다.



남대문시장성당(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1 8층

압구정1동성당

남대문시장성당(준)

대치4동성당



남대문시장성당은 남대문시장에 위치한 준본당으로 1999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1985년 12월 5명의 신자 상인이 모여 남산의 매킨선교회(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에서 첫 미사 봉헌을 계기로 남대문시장에 신자 공동체가 탄생해, 이듬해 12월 ‘성가정의 모임’이란 이름으로 공동체가 결성되었습니다. 1999년 3월에 공동체가 명동대성당 관할로 편입되면서 명동 소속의 남대문시장공소가 되었다가 9월 준본당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장소인 금오빌딩 8층에 새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성전 봉헌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